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대비하라:
이사회의 위기 시나리오 플래닝」 및 3월 동향

2025.03



Contents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03
II. 규제 동향	04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09
IV. FAQ	11
V. 그룹·센터 소식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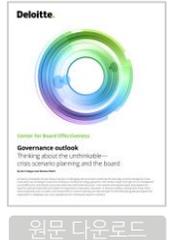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대비하라: 이사회 의 위기 시나리오 플래닝

2025년 1월, NACD Center Inclusive Governance &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crisis scenario planning and the board」

- 주도면밀한 이사회 의 위기 시나리오 플래닝은 여러 가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며, 이사회 의 위기 대응력과 장기적 회복탄력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위기 유형



구분	주요 내용
기술 리스크	•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요소 증가 및 심각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 법률규제, 조세정책, 국유화 등 글로벌 환경의 복잡성 증대
기후 변화 리스크	• 자연재해, 가뭄, 자원 부족 등 2차·3차적 영향 고려 필요

- 이사회 의 위기 시나리오 플래닝의 주요 이점은 하기의 4가지 사항으로 정리됨
 - 기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새로운 리스크 및 취약점 식별 지원
 - 기존 가정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여 준비 태세의 격차 해소
 - 이사회 와 경영진의 위기 대응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 도출
 - 이사회 가 보다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 영역을 명확히 제시
- 이사회 가 고려해야 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음

이사회 체크리스트

- 현재 위기 대응 계획이 예상 시나리오를 충분히 반영하며, 보완할 취약점은 없는가?
- 회사는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영향이 큰 위기 상황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 위기 관리 계획이 조직 내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시 외부전문가 및 자문기관의 협력을 고려했는가?
-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조직 구조가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가? 기술을 활용하여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이사회 가 경영진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경영진의 핵심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위기 대응 매뉴얼에 반영되었는가?

상장회사 결산시즌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유의

2025.2.25 (화) 금융감독원

- 통상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되어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올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이슈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임
-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18개사, 21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81%, 부정거래 14% 및 복합 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한 한계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 사례가 많았음



<표 1>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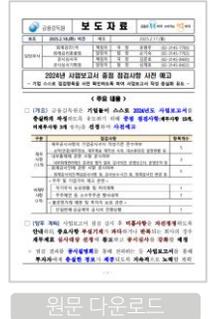
구분	'22년		'23년		'24년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전체	44		67		58		169	
결산 관련	6	(100%)	6	(100%)	9	(100%)	21	(100%)
미공개	5	(83%)	6	(100%)	6	(67%)	17	(81%)
부정거래	-	-	-	-	3	(33%)	3	(14%)
복합	1	(17%)	-	-	-	-	1	(5%)

- 금융감독원은 결산시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여 혐의 발견 시 엄중조치할 계획임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5.2.18 (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함



구분	중점점검사항	항목개수
재무사항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감사의견, 운영보고서, 운영조직 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시간 등, 회계감사인 변경 등 	5
비재무사항 (3개)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1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 	1

- 사업보고서 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을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예정임

II 규제 동향

분기배당, 배당액 얼마인지 알고 투자 가능

2025.2.17 (월) 금융감독원

- '24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음
 - 투자자들은 분기배당 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 가능
-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함
 - '24년에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25년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함
-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배당정책을 구체화하여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함
 -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5.2.14 (금)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함
 -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결과 보고서의 기재충실도가 미흡한 사항,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관련 사항을 중점점검사항으로 선정하고 점검할 예정임
- 핵심지표 4개, 세부원칙 5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사항 1개를 포함한 총 10개 항목을 중점점검사항으로 선정함
 - 하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원칙번호로, 각 원칙은 기업이 지배구조 관련 원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각 원칙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기준을 제공함



[원문 다운로드](#)

구분	중점점검사항
핵심지표* (4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 ⑭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세부원칙** (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2-③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 • 3-③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9-①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 10-②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기타사항 (1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 주주권리 보호절차 적절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10대 원칙이 반영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기본적인 지배구조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3가지 영역에 대해 세부적인 15개 핵심지표 준수 여부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 강화

2025.2.13 (목)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 등은 사외이사 역량강화를 통한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올바른 금융회사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이사회 운영 등 리스크관리 체계의 선진화 뿐 아니라 구성원인 사외이사가 필수 지식과 주요 이슈를 빠르게 습득하여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함
- 주요 협업 내용



원문 다운로드

1. 사외이사 경력·연차별 맞춤형(tailor-made)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 금융연수원은 사외이사의 경력 및 연차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필요 지식, 주요 이슈 및 금융감독 정책 방향 등을 공유
 - 예비이사* 대상: 금융회사 및 이사회 구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후 원활한 이사 역할 수행의 기반 마련
 - *사외이사 선임 희망자, 금융회사 사외이사 Pool 내 포함된 인사 등을 대상
 - 신입이사 대상: 사외이사로서 알아야 할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법·재무 분야 등 필수 지식과 경영진에 질문해야 할 주요 포인트 습득
 - 재임이사 대상: 매해 주요 금융사고 사례 및 금융감독 정책 방향 등 임기 중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이슈 습득

2. 이사회 사무국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 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이사회 운영 보조를 위해 사무국 직원이 알아야 할 지식, 사무국업무 Tip 및 사례,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교육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이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올바른 지배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제기되는 건의사항, 제언들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임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주주 견제하는 '상법개정' 통과...'국장 저평가' 고리 끊을까 [경향신문]
- '주주 충실' 상법 개정되면...'기업지배구조 개선·증시 호재' [한겨레]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 [법률신문]
-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 본격 가동...위원장 최종학 교수 [뉴시스]
- 이복현 '주주 중심 지배구조 구축해야'...주주 행동주의 강조 [뉴데일리 경제]
- 지난해 코스닥서 불공정거래 혐의 72건 적발...'지배구조 취약한계·기업'이 원인 [서울경제]
- 美 SEC, 주주 권한 줄이고 이사회 강화...기업거버넌스 규제 변화 [ESG 경제]
- 제약바이오, 주총서 지배구조 정비...선진 거버넌스·R&D 강화 [연합뉴스]
- 은행장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배구조 선진화·내부통제 관리' [SBS Biz]

이사회·감사위원회



- 상장사 56%, '상법 개정시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 등 부정적 영향' [인더스트리뉴스]
-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도 관치...당국 '사외이사 거수기 전략' 압박 [매일일보]
- 올해 대기업 사외이사, 관료 늘고 학자 줄었다 [조선일보]
- 사외이사 연봉킹 어디?...삼성·SK·현대차·LG는 1억 클럽 [한경 Business]
- 금융지주 새 사외이사 키워드는 '내부통제'...디지털 전문가·여성 등 다양성도 [조선비즈]
- 게임업계, 주총 시즌 돌입...'법률·회계' 전문가로 리스크 대응 강화 [마이데일리]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9호 발간 [이데일리]
-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에 강평경·정태진 교수 [조선비즈]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트럼프 2.0 통상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 [머니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소셜임팩트 행보...홍중성 대표 '사회공헌 적극 동참' [동아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년 개정 세법 설명회' 성료 [조세일보]
- SK해운 품는 HMM, '딜로이트 안진'에 실사 맡긴다 [더벨]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분식회계 부당이득 없어도 벌금 최대 10억 [\[뉴시스\]](#)
- 2년 주기였던 4대 회계법인 감리...올해부터 바뀐다 [\[조선비즈\]](#)
- 한공회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 공인회계사가 전문가' [\[뉴시스\]](#)
- '자금 조달은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농협법 개정 추진 [\[국제뉴스\]](#)
- '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법' 과도한 정부개입 [\[의학신문\]](#)
- 보험사, 새보험회계 국제기준 적용에 재무건전성 강화에 분주 [\[한스경제\]](#)
- 신탁, 협동조합에 특화된 세무·회계프로그램 지원...회계투명성 확보 [\[라이선스뉴스\]](#)

부정행위방지



- 금융당국, 상호금융·핀테크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 [\[이투데이\]](#)
- '외부감사 유예제' 회계논란기업 감점 확대 [\[머니투데이\]](#)
- 무차입 공매도 철저히 감시...금감위 불법 행위 강력 제재 [\[스카이데일리\]](#)
- 우리은행, 기존 사고패턴 반영 부정거래 검사 시스템 가동 [\[IT조선\]](#)
-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증가...금감원 GA설계사에 '준법교육' [\[디지털타임스\]](#)
- 금감원 부원장보 '2금융권, 부실자산 정리·금융사고 방지 힘써달라' [\[베타뉴스\]](#)

규제동향



- 금융당국·5대 금융지주, 이사회 역량 강화 힘 모은다 [\[뉴시스\]](#)
- 금감원 '투자자, 상장회사 결산시준중 풍문·허위 정보 경계해야' [\[조세일보\]](#)
- 금감원 '사업보고서 내 자사주 현황 등 중점 점검' [\[SBS 뉴스\]](#)
- 올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인 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매일일보\]](#)
- 금감원 '빅테크에 컨설팅 중심 검사...금융사고엔 엄중조치' [\[연합뉴스\]](#)

M&A



- 벤처투자조합 지분 매각요건 완화...M&A 활성화 유도 [\[뉴시스\]](#)
- 5년간 국내 제약업계 M&A 48건...금액은 빅파마 빅딜 1건 수준 [\[연합뉴스\]](#)
- 삼성전자 신사업팀 신설...대형 M&A 추진 주목 [\[뉴시스\]](#)
- 올해도 보험사 M&A 난항...당국 개입 가능성 [\[뉴스토마토\]](#)
- 공정위·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M&A 모니터링 협력 [\[서울경제TV\]](#)
-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시 투자·M&A 축소될 것 [\[한국경제\]](#)

Q.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감사위원회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 금융위원회는 '24년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¹⁾를 신설함
 - 평가위원회는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토대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고, 회계투명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3년) 유예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²⁾
-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제도로,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될 수 있어 감사인 선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회계투명성과 감사 독립성이 검증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주기적 지정 유예는 회계 투명성과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이 확립된 기업에 한해 적용되므로, 기업은 유예를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상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평가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함³⁾

1)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

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2025.03.14.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안)」, 2024.12.31.

Q.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감사위원회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계속)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및 외부감사업무와 감사인 선임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감사인 선임과 회계감사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p>*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이 1인 이상인 경우 100점, 2인 이상인 경우 200점 **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시 50점</p>
감사기구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부정 사전 적발·예방을 위해 감사위원회 전문성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계전문가의 감사위원회 참여 확대 특히,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p>* 회계전문가가 1인 이상 있는 경우 50점, 위원장이 회계전문가인 경우 100점 추가</p>
감사지원조직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근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전담지원조직⁴⁾이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p>* 인원 비중, 근무경력연수, 부서 내 회계전문가 수 등에 따라 최대 130점 **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이 임원급인 경우 40점, 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인사 동의권 보유 시 최대 80점</p>

- 참고사항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통제기준상 재무전문가(Audit Committee Financial Expert)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⁵⁾

내용
①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이해
② 회계추정, 충당금·준비금 등 적용·평가 능력
③ 회사와 비교할만한 수준·난이도의 재무제표 작성·감사·분석·평가·감독 경험
④ 재무보고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이해
⑤ 감사위원회 기능 이해 등

4)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를 하면서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부서로,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특성·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 판단 예정

5) Sarbanes-Oxley Act, section 407

Q.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감사위원회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계속)

- 이사회는 기업이 지정 유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지를 점검하고 감독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항목별 내부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내부통제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필요 시 경영진에 보완을 권고해야 함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의 주요 평가항목별 상세 점검 및 개선 방안으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내용

- (감사위원회 독립성) 내부 규정을 점검하여 정관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기 점검
- (감사지원 조직의 실효성) 내부감사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사회 보고체계 정비
-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검토하고 절차의 적절성 점검 수행
- (추가 가점 및 감점 요소) 지배구조 개선 이력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공식 문서화

Q.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감사위원회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계속)

• [별첨 1]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 ⁶⁾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1	감사기능 독립성 (300)	1)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1인 분리선출 100점, 2인 이상 200점	200
		2) 감사위원회의 전원 사외이사 구성	50
		3) 사업연도 개시 전 외부감사계약 체결	50
2	감사기구 전문성 (200)	4)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
		5) 회계전문성 확보 여부	50
		6) 감사위원장의 회계전문성	100
3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250)	7) 회계·감사지원조직 규모(상대평가)	50
		8)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 숙련도(상대평가)	40
		9) 전담지원조직 전문성(회계전문가 규모)	40
		10)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위상	40
		11)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평가·임면동의(협의)권	80
4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	12) 감사인 선임·공모절차 투명성	100
		13) 감사인 선임·공모 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
5	회계투명성 개선노력 (100)	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정성 평가)	100
가점	외부표창 (+50)	16)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평가 및 표창	(최대 50)
감점	사회적 물의 (-50)	17)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
합 계			1,000 (최대 1,050)

• [별첨 2] 평가항목 설계 원칙 ⁷⁾

내용
① 기업 지배구조 개선유인 제고를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 명확화
②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③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되, 자체 개선노력 반영
④ 즉시시행이 어려운 경우, 정관·내규 반영 등 구속력 있는 방법 인정
→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획득 시 지정유예

6,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별첨: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기준」, 2025.03.14.

UPCOMING EVENT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한국회계학회

[세미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국내외 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 대상: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C레벨 등
- 일시: 2025년 5월 9일 (금) 14:00 ~ 16:40
- 장소: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at IFC (3F)
- 주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한국회계학회
- 참석신청: ① 우측 신청하기 링크 ② 우측 QR 코드 ③ 홈페이지 신청
 ※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착순 접수 받으며, 참석 확정 시 별도 이메일 안내 예정
- 문의: krccg@deloitte.com
 *교육확인서는 세미나 종료 이후 이메일로 발급 예정 / KICPA CPD 등록 가능

신청하기



#국내외 경제-거버넌스 환경 변화 #내부회계관리제도·자금사고 예방 전략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상법 개정

			사회자: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Opening	14:00 ~ 14:05	Opening Remarks I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
	14:05 ~ 14:10	Opening Remarks II	홍중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Session	14:10 ~ 14:40	• 세션 I. Keynote Speech 국내외 경제 환경 및 전망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4:40 ~ 15:00	• 세션 II. 글로벌 이사회 주요 동향 및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연관성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15:00 ~ 15:20	Break Time & Networking	
	15:20 ~ 15:50	• 세션 III-1.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의 회계전문가의 중요성(안)	손혁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 &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15:50 ~ 16:10	• 세션 III-2. 자금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내부통제 강화 전략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수석위원
	16:10 ~ 16:40	• 세션 IV. 최근 상법 개정에 대한 소고	장정애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losing	16:40 ~	Closing Remarks & Wrap-up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와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참석자 간 교류와 의견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됨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2025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감사위원회의 공통된 생각

구분	내용
일시	2025년 5월 1일 (목) 오전 02:00
장소	온라인 시청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타 파슨스(Krista Parsons): 회계감사 거버넌스 서비스 및 감사위원회 프로그램 Managing Director,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리더 • 바네사 테이텔바움(Vanessa Teitelbaum): Center for Audit Quality (CAQ) Senior Director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딜로이트 글로벌의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와 Center for Audit Quality(CAQ, 감사품질센터)가 공동 작성한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제4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 •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와 협업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변화하는 우선순위, 당면과제 및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임

 신청하기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생성형 AI: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항 (아시아 태평양 권역)

구분	내용
일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02:00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태평양 권역은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 및 도입 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이사회는 AI 전략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AI 통합 시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며, 조직 목표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이사회가 AI 논의와 지역 내 시급한 현안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직면한 도전과제와, AI 관련 논의가 이사회 내 다른 중요한 이슈를 압도하지 않도록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임

 신청하기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감사위원회 효과성: 문화가 전략을 압도하는가?

신청하기

구분	내용
일시	2025년 9월 11일 (목) 오전 12:00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위험 관리, 통제, 감사, 보증 등 중요한 영역에 대해 감독 역할을 하며, 이러한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사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감사위원회를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와 감사위원회의 성공을 이끄는 데 있어 명확한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임 전략이 강력한 조직 문화와 협력적인 업무 방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감사위원회 의장이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5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전 학술상 시상식 개최

스케치영상보기

- ▶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2월 28일,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이 후원하는 '2025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전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함
- ▶ Honors Award(공로상)는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분야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유하고, 향후 해당 분야의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진학자에 수여하며, 강평경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가 수상함
- ▶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는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최근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학자에게 수여하며, 정태진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수상함
- ▶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앞으로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전 학술상이 연구자들의 학문적 통찰을 장려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왼쪽부터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차기 회장(명지대 교수), 지승민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고려대 교수),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 정태진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강평경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 장형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부대표,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9호 발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9호'를 발간했으며,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취약기업의 재무실적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함
-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3년(21~23년)간 선정한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취약 기업의 재무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수기업의 이익률이 취약 기업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전문가 기고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정비와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원문보기](#)



구분	목차
I. 전문가 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등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 기업지배기구 Insight 창간호 및 제 5호에 이은 제3편 - ② 부정, 그 발생패턴과 내부통제
II. CCG 아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AI 거버넌스: 이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 ② KOSPI 200 감사위원회 교육 현황 및 시사점
III. 데이터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CEO-이사회 의장 분리 및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현황
IV. 주요 규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의사항 ②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③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④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 결과
V. 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 스투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및 이사회·감사위원회 준비사항 ② 주주총회 체크리스트
VI. 주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25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제4판 발간

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신청하기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13.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 해설 및 체크포인트 14.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해설 15. 경영진의 검토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Strategy, Risk & Transactions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